

지역 소식통

고창,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고창군이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고창군에 따르면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말까지) 시행과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군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매연저감장치 설치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1차 접수) 받고 있으며, 잔여 예산 발생 시 상시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사업비 29억원, 사업량은 약 1040대 정도이다. 매연저감장치 설치사업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환경부 지침이 확정되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도 진행한다. 보일러 설치(교체)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60만원을 지원해 준다. 공공시설 부분에 선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도 이뤄지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지역 인문·역사 인재 육성 박차

정읍시가 지역의 인문·역사 자원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창의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이 인문학적 지식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학교에 인문·역사 분야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 10개 학교를 선정해 학교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인문·역사 강좌와 유적지 탐방, 전통 체험 프로그램, 독서 토론, 공모전 참여 등이며, 이에 수반되는 감사비,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학교는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계획을 작성해 3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학교에 대한 심사를 거쳐 4월 중 대상 학교를 선정해 5월부터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강남지구 배수개선사업' 속도

심덕섭 고창군수 "군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최선"

고창군 아산면과 무장면민들의 숙원인 '강남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상기후로 시시때때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만큼, 공사자재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관리가 추진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현장행정 세 번째 방문지로 '강남지구 배수개선사업'과 '강남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았다. 강남지구는 추진전과 강남천이 합류되는 지점(106.7ha)을 말한다. 아산면 4개 마을(대동, 주진, 목



심덕섭 고창군수는 현장행정 세 번째 방문지로 '강남지구 배수개선사업'과 '강남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 관계자를 둘러봤다.

동, 남산리)과 무장면 목우리 일원이 영향권이다. 이곳에 배수문 3개소를 신설 및 확장하고, 4.6km의 배수로를 만들고, 9.8ha에 지대를 높인다.

심 군수는 관련 부서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 관계자를 독려했다. 또한 하천정비 공사로 발생한 흙탕물로 영농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방지시설 설치 등을 꼼꼼히 챙겼다.

앞서 추진전은 2020년 여름에도 수해로 제방일부가 유실되며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날 심 군수의 현장방문에는 무장과 아산면의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당시 아찔했던 기억을 얘기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건의했다. 심 군수는 주민들의 손을 잡으며 "저를 포함한 모든 고창군 공무원이 책임행정에 늘 진심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군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불안감, 불편함이 직접 표출되는 민원은 수시로 점검하며 챙기고 있다"며 "집중 호우로 매년 같은 곳에서 같은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께서 안심하고 자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선정

부안군, 익산시·남원시·완주군·무주군과 협업 성과

부안군이 교육부가 주관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머물고 싶은 글로벌 생명경제 교육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5개 시군(부안·완주·무주군, 익산·남원시)과 협업해 이뤄낸 성과이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됐다.

전북자치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역책임 돌봄 시스템 구축, 지역 주도 공교육 혁신, 지역정주형 전문인력 양성, 지역 교육 국제화라는 4대 추진전략을 목표로 5개 시군의 지역 여건에 맞는 특구 모델을 발굴했다.

군은 '우리밀 베이커리 특화 교육

산업 특구'라는 명칭 아래 전국 생산량의 7%를 차지하는 우리밀 지역산업을 교육과 연계해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들이 돌봄에서부터 교육, 정착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책임 돌봄시스템 강화, 초·중·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또 전북 최초로 지난 2023년 선정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사업과 연계를 통해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내 늘봄학교와 학교 밖 돌봄체계까지의 연결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부안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며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생태계를 구축해 지방시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부안군은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면적이 가장 큰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전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경면적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에 한해 지난달 29일까지 비대면 신청 이후 필지 추가 등 변동사항이 있는 농가는 해당 기간 내 읍·면사무소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지급 대상 농지에서 지난 2016년 이후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승계대상자 등 지급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이다.

소농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 소득 등을 검증해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며 올해는 지급단가가 1ha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다.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단가는 면적구간별, 진흥·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해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다.

직불금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격요건을 검증하며 오는 9월까지 영농패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이후 오는 10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부안군은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면적이 가장 큰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전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경면적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에 한해 지난달 29일까지 비대면 신청 이후 필지 추가 등 변동사항이 있는 농가는 해당 기간 내 읍·면사무소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지급 대상 농지에서 지난 2016년 이후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승계대상자 등 지급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이다. 소농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 소득 등을 검증해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며 올해는 지급단가가 1ha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다.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단가는 면적구간별, 진흥·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해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다. 직불금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격요건을 검증하며 오는 9월까지 영농패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이후 오는 10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컨트롤타워 '일자리정책 추진단' 확대 운영

일자리정책 추진단 회의 개최 13개 부서, 직원 15명 확대

정읍시가 일자리정책 추진의 컨트롤 타워인 '일자리정책 추진단'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지난해 일자리정책추진단을 출범해 일자리창출 8570명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했다. 그 결과 9447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목표 인원보다 877명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 일자리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일자리정책 추진단을 기존 10개부서·직원 12명에서, 13개 부서·직원 15명으로 확대 구성했다. 경제회복에 발맞춰 고용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일자리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29일 일자리정책추진단은 단장인 송금현 부시장을 비롯해 각 부서장,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북과 확대 산학협력단, 취업중개센터, 청년지원센터 4개 유관기관이 참석해 1차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일자리 창출 목



지난달 29일 일자리정책추진단은 단장인 송금현 부시장을 비롯해 각 부서장,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4개 유관기관이 참석해 1차 회의를 가졌다.

표를 1만 274명으로 세우고, 운영계획과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일자리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들은 이후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사업 발굴 안전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송금현 부시장은 "앞으로 일자리정

책추진단을 통해 저소득층, 경력단절, 노인, 장애인 등 취약 취약계층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특히 일자리 미스매칭으로 인한 구인난을 해결하고, 시민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일자리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태인면 일원서 '3·1절 기념 행사' 개최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호남지역 독립민중운동의 시발점으로 평가받는 정읍시 태인면 일원에서 3·1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태인장년회의소와 함께한 이날 행사는 민족의 자주독립과 국권회복을 위해 투쟁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시민들에게 애국·애족 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행사에 앞서 태인 3·1운동 기념탑에서는 3·1운동에 헌신한 선열의 위업을 기리고, 그들의 희생정신을 되새

기며 회화와 참배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태인초등학교에서 열린 행사는 태인 3·1운동 유가족 대표 윤대식 씨의 기념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이 진행됐다. 더불어 손태극기 나눔행사, 태극기 사랑 캠페인 등 부대행사도 있었다. 이학수 시장은 "국권을 상실하고 국난에 처한 나라를 찾기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느끼고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